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도모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 창조교육과
2023.1.10.

경상남도 교육담당관
2023.2.6.

부산시,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지난 1월 10일 부산 개성고등학교에서 교육부와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교육청, 부산진구청, 부산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산지역 15분 생활권역 내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부지 내 문화, 체육, 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위한 상생거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부족한 공공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부산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부산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 ▲부산 개성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개성고등학교가 보유한 약 3만 평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주차장, 복합체육시설 등을 추진하며, 교육부와 부산시·부산교육청·자치구·설치학교로 구성된 ‘(가칭) 부산 학교복합시설 기획단’을 통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개성고등학교 전경 및 사업 대상지
출처: 부산광역시, (2023). 부산시, 교육부·교육청과 손잡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월 10일 보도자료.

경상남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실시

경상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다. 도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업을 통해 작은학교와 마을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7개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고성 영오초등학교와 남해 상주초등학교가 최초로 선정되어 총 39가구 137명이 이주한 상태이며, 2021년에는 의령 대의초등학교와 함양 유림초등학교로 총 22가구 103명이 이주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현재 2022년 사업대상지인 의령 화정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고성 삼산초등학교와 거창 북상초등학교는 올해 8월 임대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빈집 정비뿐 아니라 통학로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으며, 총 3개소를 선정하여 45억 원(LH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도로포장, CCTV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특색 있는 학교 교육활동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